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

(1면에서 계속)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군사사업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쌓기등으로 틀어쥐고 전군을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와 같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려야 합니다.

훈련이자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이며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 여기에 강군육성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며 실전환경에 접근된 실용적훈련의 포성을 단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주

변에서 부산을 피우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무장장비들에 정통하고 전문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다그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도 고도기술전을 치를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군대로 육성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병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제정된 규정과 교범을 잘 알고 그대로 생활하는것을 습벽화하여 부

대, 구분대, 군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규화적면모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전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신도 헤치는 혁명군대의 훌륭한 품모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진정을 바쳐나가는것을 혁명적군풍으로 여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적인 구호, 혁명적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태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쥐고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용위하여온 조선인민군이 앞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역센 힘을 백배해나가리라하는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통성변명할것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

당신들의 앞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기가 휘날리며 당신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인도할것입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나갑시다!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이 2월 8일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광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장장 70성상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혁명의 총대로 어깨에 받들어 백전백승만을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온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위풍당당한 혁명군대의 정규화적면모를 보여주며 열병총대들이 보무당당히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주체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을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등의 합성을 더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듯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와 종합군악대가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벌을 형상하고 《70》, 《당군》이라는 수자와 글발을 새기며 시작례식을 진행하였다.

애국가와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열병지휘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에게 열병부대가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인민무력상이 열병부대를 사열하면서 2.8절을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공화국 인민무력상이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 드리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끝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혁명무력강화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가장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으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조국보위의 노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으로 정규무력건설시기 상징총대들이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발걸음드높이 나아갔다.

이어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위, 병종, 전문병, 군의군무병종대들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당중앙결사옹위의 제일친위대, 제일결사대의 궁지와 영예를 떨치며 조선인민군 제1, 2, 5군단총대들이 기세충천하여 광장으로 들어섰다.

(2면으로 계속)

